

[유통]

김명주

02-3774-1458 myoungjoo.kim@miraeasset.com

유통

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유통 코멘트

SSG.COM, 첫 구매 고객 30회 무료 배송 쿠폰 제공 https://bit.ly/2KqrH46

- SSG.COM, 6월 한달 간 첫 구매 고객에게 30회 무료 배송 쿠폰 제공. 1) 한 개만 구매해도 사용 가능하고 2) 다운로드 기준 한달 동안 사용 가능
- 동시에 첫 구매 고객에게 20% 할인 쿠폰도 지급. 이번 이벤트는 3월 SSG.COM 출범 후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프로모션 행사임
- 대대적인 프로모션 행사에 따라 SSG.COM 순방문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1)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과 2) 배송 비용 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판단 (SSG.COM은 쿠 팡과 다르게 지입차 계약 기사님이 배송, 계약된 일정 배송 건수 초과 시 비용 발생)
- 금번 프로모션 후 신규 고객의 충성고객화가 매우 중요.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할인 쿠폰 및 무료 배송 이상의 전략이 요구
- 단기적으로 하반기 1) 프로모션을 통한 트래픽 증가와 2) 배송 capa확대(PP센터 확대 등)에 따라 외형성장 회복 가능. 이에 따라 단기 반등 가능성 높음
- 그러나 궁극적으로 1)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고 2) 충성고객을 확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

관련 보고서 'SSG.COM'의 가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: https://bit.ly/2YSuU0g

전일 주요 뉴스

- 중국 외교부 당국자,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하여 한국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https://bit.ly/2WJNw55
- 기재부,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고려해 면세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상향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. 검토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경제 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 https://bit.ly/2EPE7Pe
- 쥴, 금월부터 대구, 부산 지역 내 GS25, 세븐일레븐 판매 확대 https://bit.ly/318UFLu
- 식약청, 쥴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착수 https://bit.ly/2wArKBU
- 금년 백화점 가전 고성장 지속. 1) 롯데 23.6% 2) 현대 22% 3) 신세계 11.3%. 롯데하이마트 대비 백화점 가전 고성장 이유는 고사양 가전 구매 욕구가 크기 때문 https://bit.ly/2WaoTtT

① 이마트 (전일주가 -1.7%)

- 이마트24, 맛없으면 환불해주는 제품 수 20->50개 확대 https://bit.ly/2lkc2jP

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 명	티커	투자의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	성과(%)						
5 78	4/1				(십억원)	1W	1M	ЗМ	YTD	1Y		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220,000	161,000	4,554	0.6	-9.8	-15.7	-23.7	-29.1		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44,500	4,028	-1.4	-15.2	-19.7	-20.8	-40.3		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94,500	2,899	1.2	-12.4	2.1	15.0	-32.4		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57,000	42,900	1,013	-1.3	-11.0	-14.5	-8.0	-44.4		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125,000	84,500	1,978	-0.7	-15.3	-14.0	-6.5	-27.2		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35,100	2,703	-0.6	-8.1	-11.0	-13.3	-12.1		
BGF리테일	282330	매수	262,000	188,500	3,258	-6.0	-10.9	-10.5	-7.6	0.3		

주: 2019.6.4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n	1W	1M	3M	YTD	1Y	19F	20F	19F	20F	19F	20F
롯데쇼핑	023530 KS	4,554	3,850	0.6	-9.8	-15.7	-23.7	-29.1	15	13.5	0.4	0.4	2.7	3.0
이마트	139480 KS	4,028	3,405	-1.4	-15.2	-19.7	-20.8	-40.3	11.9	10.3	0.5	0.5	4.1	4.5
신세계	004170 KS	2,899	2,451	1.2	-12.4	2.1	15.0	-32.4	9.6	9.5	0.7	0.6	19.4	7.2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1,013	856	-1.3	-11.0	-14.5	-8.0	-44.4	8.5	7.8	0.5	0.5	5.7	5.9
현대백화점	069960 KS	1,978	1,672	-0.7	-15.3	-14.0	-6.5	-27.2	8.6	7.5	0.5	0.4	5.4	5.9
GS리테일	007070 KS	2,703	2,285	-0.6	-8.1	-11.0	-13.3	-12.1	18.9	16.4	1.2	1.2	6.6	7.3
BGF리테일	282330 KS	3,258	2,754	-6.0	-10.9	-10.5	-7.6	0.3	19.3	17.2	5.0	4.1	29.0	26.3
GS홈쇼핑	028150 KS	1,114	942	1.2	-0.7	-9.1	-5.5	-2.5	9.3	9.1	1.0	0.9	10.4	9.8
현대홈쇼핑	057050 KS	1,098	928	-2.8	-7.3	-16.1	-7.6	-13.7	7.9	7.3	0.6	0.6	8.4	8.5
Walmart	WMT US	292,332	292,332	-0.4	-0.1	4.2	9.5	19.4	21.1	20.2	3.9	3.7	18.6	18.9
Kroger	KR US	18,521	18,521	-2.8	-10.8	-19.8	-16.5	-7.2	10.5	9.7	1.9	1.7	21.1	18.6
Costco	COST US	106,025	106,025	-2.1	-1.5	10.4	18.3	21.4	29.6	28.2	7.2	6.4	25.5	23.6
Target	TGT US	42,498	42,498	2.7	9.2	14.1	25.5	8.6	13.9	13.1	3.7	3.4	26.6	26.4
Macy'c	M US	6,536	6,536	0.6	-9.0	-13.1	-28.9	-43.0	6.8	7.2	1.0	0.9	14.6	13.3
Bestbuy	BBY US	16,938	16,938	-3.3	-15.7	-5.7	19.4	-9.5	11.1	10.6	4.7	4.4	43.9	42.4
Nordstrom	JWN US	4,963	4,963	-2.7	-20.3	-29.4	-31.1	-37.0	9.4	8.8	6.6	8.0	61.3	53.9
Ocado	OCDO LN	7,995	10,143	-4.9	-17.0	9.5	45.0	30.3	-	-	10.8	11.7	-9.9	-6.7
Isetan Mitsukoshi	3099 JP	360	3,335	-1.7	-14.1	-17.9	-25.1	-33.0	24.1	18.7	0.6	0.6	2.6	3.2
Takashimaya	8233 JP	205	1,898	-3.6	-7.7	-22.0	-17.9	-35.9	9.6	10.3	0.4	0.4	4.7	4.2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182	29,471	-5.9	-7.0	-25.1	-24.9	-26.0	14.6	13.2	1.2	1.1	8.4	8.8
Familymart	8028 JP	1,266	11,725	-14.4	-15.8	-21.9	-28.2	-13.6	25.3	24.0	2.1	2.0	8.5	8.5
Lawson	2651 JP	507	4,691	-4.2	-2.7	-24.3	-27.3	-28.2	26.5	19.1	1.8	1.7	6.9	9.4

주1: Local 시가총액은 십억원, 십억엔, 백만달러임

주2: 일본기업은 FY2019와 FY2020에 해당함

주3: 연결기준, 롯데하이마트는 개별 기준

자료: Bloon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주식워런트증권 신세계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GS리테일, 롯데쇼핑, 이마트을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